

해외 수산생물 질병발생 동향 (제2015-12호)

2015. 6. 12. (금)

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검역검사과

온두라스 · 니카라과, 조기치사증후군(EMS) 양성 확인(6.3)

- 중앙아메리카 국가 중 온두라스와 니카라과에서 새우조기치사증후군(EMS) 양성 진단이 나왔다. 지난 주 Undercurrent News는 아시아 및 멕시코에서 자주 발생하는 EMS의 원인을 밝히는 실험실 연구원의 말을 빌려, 상기 두 국가에 소재한 양식장 3개소에서 EMS 양성 진단이 나왔다고 보도했다. 하지만 해당 연구원은 연구 결과 공표가 아직 미정인 점과 발병 농장과의 비공개 합의를 들어 감염된 새우가 어느 국가에서 수입됐는지를 밝히지 않았다.
- 멕시코 양식업체인 Grupo Acuicola Mexicano의 기술부서 담당자는 “온두라스와 니카라과에서 EMS 양성이 확인됐다.”고 밝혔다. 중앙아메리카 소비자용 새우를 온두라스에서 오랫동안 공급받아 온 Abraham Andonie도 상기 사실을 인정했다. 이 소식은 지난 주 Undercurrent가 보도한 중앙아메리카 새우 산업 현황에서 Andonie가 EMS 발병국가를 온두라스와 니카라과로 추정된 사실과 일치한다.
- 그는 “중앙아프리카 새우 생산량이 적기 때문에 EMS 발병으로 전 세계 새우 공급량과 가격은 타격을 입지 않을 것으로 본다.”고 지난 주 밝혔다. 그 당시에는 해당 국가 새우 생산에 끼칠 영향을 추산하기에 이른 감이 있었다고 고백했다. 지난해 온두라스의 새우 생산량은 6,500만 파운드였고, 니카라과는 약 2,500만 파운드에 달했다. 미 수산청 자료에 따르면 작년 온두라스의 대 미국 수출은 6,640만 달러(1,740만 파운드)였고, 니카라과는 2,230만 달러(600만 파운드)였다. 같은 해 미국 전체 새우 수입량은 125,000만 파운드(67억 달러)였다.
- 급성간체장괴사병(AHPND)이라고도 불리는 EMS는 비브리오 박테리아 형태로 2009년 중국에서 처음 보고된 후 베트남, 태국, 말레이시아, 멕시코로 퍼졌다. 세계은행은 2016년까지 새우 3백만 톤이 이 질병으로 폐사돼 수십억 달러의 손해가 생길 것으로 본다. Andonie는 EMS 발병을 계기로 온두라스가 새우 양식이나 생산 시스템을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.
- 중앙아메리카 새우 생산업은 EMS뿐 아니라 다른 문제로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. Andonie는 앞으로 엘니뇨현상 때문에 생산이 악화될 것이라고 보았다. 또한 그는 “자국에서 발생한 EMS 문제로 지난 몇 년 간 멕시코가 중앙아메리카 새우 제1 소비국이었지만 현재는 이들이 저가로 구매하고, 중앙아메리카 내 수요도 낮다. 이 때문에 새우 가격이 낮아져 양식업자들이 미국이나 EU로 눈을 돌린다.”라고 말했다.

출처 : <http://www.undercurrentnews.com/2015/06/03/sources-honduras-nicaragua-are-central-american-nations-afflicted-with-ems/>

■ 노르웨이, 약품을 쓰지 않는 물이 제거법 개발 및 효과 입증(6.8)

- 노르웨이 수의과학원이 양식업체 일부와 손잡고 약품을 쓰지 않는 물이 제거법인 Thermolicer®의 효과를 테스트해 발표했다. 이 방법으로 이동 물이 성체의 개체수가 현저히 줄어들었다. 또한 Thermolicer®는 어류에 해를 주지 않았다. 물이가 기생했던 어류는 심각한 상처 없이 치료 후 먹이를 잘 섭취했고 치사율도 낮았다.
- 열 처리법으로 대략 75%에서 100%까지 운동성 물이가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. 이 방법이 고착성 물이 제거에도 효과가 있는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통계치는 없었다. 하지만 치료 후 고착성 물이 개체수가 줄어들었다. 일부 지역에서는 물이 제거법을 실시한 후 3주가 지나도 개체 수의 변화가 없었다. 이는 이웃 지역에서 물이가 옮겨 왔거나 고착성 물이가 자랐기 때문으로 보인다.
- 약품을 쓰지 않는 물이 제거법을 개발해 나가야 관련 산업이 무너지지 않는다. 상기 프로젝트에서 가장 큰 난제는 침입과 펌프시스템이었다. 펌프시스템을 대체하는 방법이 개선되어 프로젝트 내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다.

출처 : <http://www.thefishsite.com/fishnews/25807/thermal-delousing-shows-successful-results-in-sea-lice-reduction/>

■ 노르웨이, 전염성연어빈혈증(ISA) 확산 방지를 위해 감염연어 즉시 폐기 고려(6.8)

- 노르웨이 식품안전청(Norwegian Food Safety Authority)은 전염성연어빈혈증(ISA) 때문에 Hordaland 중부 지역에 있는 양식장 한 곳의 어류 모두를 폐기시켜야 할 것이라 밝혔다. 식품안전청 담당관인 Hallgeir Herikstad는 "ISA 확산을 막기 위해 즉각적인 폐기 조치가 필요하다."고 주장하며 지난 몇 년 동안 Hordaland 중부 지역에서는 ISA가 발병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.
- 그는 또한 "ISA 발병은 언제나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. 때문에 우리는 지금 비상사태다. 칠레에서 해당 질병 때문에 양식업이 무너진 바 있다. Hordaland에는 수많은 양식장이 모여 있기 때문에 ISA가 발병하기 쉽다."라고 진단했다. 식품검사청은 ISA 감염 어류를 폐기하기에 앞서 몇 가지 처리 방법을 고려하고 있다. 폐기가 아닌 도살만 해 식용으로 허가할 수도 있을 것이다.
- Herikstad는 문제는 식품 안전이 아닌 질병 확산임을 강조하며 "신중한 검토 후 폐사가 그나마 위험을 최소화 할 방법이라 결론 내렸다. 12킬로그램 이상의 감염 연어가 이동 중 이탈하면 손쓸 도리가 없다. 그렇게 되면 이 지역 수산 위생과 산업에 끔찍한 상황이 올 수도 있다."고 경고했다.

출처 : <http://www.undercurrentnews.com/2015/06/08/norwegian-farmer-bolaks-to-destroy-isa-infected-salmon/>